

## '일하는 아빠' '주부 엄마' 교과서 표현 없앤다

'일하는 아빠', '가정주부 엄마'처럼 남녀 역할을 고정시킨거나 '낮은 인구증가율이 선진국의 요건'인 것처럼 인구과잉의 위기를 과장한 표현이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협력 사회, 실과(기술, 가정), 도덕 교과서 등을 수정 보완해

### 교육인적부, 남녀 역할고정 대폭 수정

거나 낮은 인구증가율이 선진국의 표현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과거 '산아 제한'에서 현재 '출산 장려'로 변화된 점도 교과서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노인정 앞에 노인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삼화 등 노인을 사회참여 구성원의 일부가 아닌 부양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부정적 이미지나 ▲단일민족에 대한 친지친 강조로 헌혈인 및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감성을 주입할 위험이 있는 표현도 삭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돈을 벌어 가정을 이끌고', '어머니가 가족들이 마음놓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의 안정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또 가정을 표현하는 삼화에 번역 등장하는 1자녀 가정도 '동생이 생겼어요' 등 다자녀 가정으로 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역(동구·서구·북구·광산구) 4개 구와 목포·여수·순천 등 전남지역 17개 시·군 등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5일 해당 지역 전공노 지부에 '20일까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 광주·전남지역 21개 기초단체

# "전공노 사무실 22일 강제폐쇄"

### "20일까지 자진 폐쇄" 계고장... 물리적 충돌 우려

광주와 전남지역 2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을 오는 22일 강제폐쇄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역(동구·서구·북구·광산구) 4개 구와 목포·여수·순천 등 전남지역 17개 시·군 등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5일 해당 지역 전공노 지부에 '20일까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전공노 지부들이 계고장의 내용에 따라 20일까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을 경우 당일 중으로 22일 오후 3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전공노 지부들은 자진 폐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 폐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일 강제폐쇄에 따른 물리적 충돌 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22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광주·전남지역 자치체들도 회의를 통해 반드시 관찰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태여서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자치단체들은 만일에 있을 전공노족과의 불상사에 대비,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 경찰 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공무원 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행정자치부 장관 퇴진운동 전개, 사무실 사수 지원, 지역별 결의대회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정정기(46) 동구지부장은 "노조사무실은 전공노의 자존심인 만큼 자진폐쇄는 절대 할 수 없다"면서 "노조 간부들은 19일부터 지부 사무실에서 철야를 하고, 별도의 사무실 사수대를 조직해 강제폐쇄를 막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20일까지 전공노족이 사무실을 자진폐쇄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22일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기로 한 만큼 타 지역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조건 강제폐쇄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제르탈레스(왼쪽) BIE사무총장을 만나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도와달라"

#### 유럽 순방 박준영 전남지사 BIE사무총장 만나

투자사절단을 이끌고 유럽을 순방 중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고잘레스 로세르탈레스(Vincent Gonzalez Loscertales) BIE(세계박람회 사무국) 사무총장을 만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한국정부가 SOC 확충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을 오는 2011년까지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잘레스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전남도의 노력에 대해 깊은 감명을 보이며 유치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는 오는 10월 중순 한국을 방문해 정부 및 전남도의 관계자들과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여수 현지를 시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기자 unipark@kwangju.co.kr

한명숙총리 중동아 등 순방 출국



한명숙 총리는 UAE(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위해 18일 출국한다.

한 총리는 8박10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 붐을 누리고 있는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의 건설,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는 등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해 방침이다.

실무방문인 UAE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공식방문이며, 이를 3개국의 경우 수교 이래 첫 총리 방문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 온·오프만평

- 김종두



태풍도 그쪽으로 가져 가시지?!

## 경남도, 여수 금오해역 어업권 취소 요구

# 전남도 법적 대응키로

전남도가 육성수면 지정과 관련 경남도와 벌어지고 있는 어업 분쟁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여수시 금오도·작도 인근 해역에 지정된 육성수면(2천816㏊)을 경남도가 지정취소 요청한 대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9미일 해역(작도 인근 해역)에 대해 자원량 조사를 거친 뒤 2005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2월 17일자로 육성수면(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번식 보호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수면) 2천816㏊를 2005년 2월 17일부터 2008년 3월 6일까

지(3년간) 지정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남해군 어민들의 조업구역 안에 일방적으로 전남도가 육성수면을 지정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이 생계 터전을 잃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7월 28일 전남도에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경남도측의 주장은 정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국립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과 200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체 해상경계 설정에 유치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미 지정된 전남 육성수면을 백지화하려는 속셈

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국립지리원이 지난 88년에 발간한 해도상에도 염연한 전남도 수역이고 한법재판소의 2004년과 2006년 판례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업무부위로 봐도 동경 128°를 기준으로 양 도간 불법이업을 단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남수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련 공무원 등과 해양부 중재에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입장차가 커 해결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일께 해양부에서 다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박진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시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 직통 : (062) 227-9600, 220-0524, 0525

• FAX : 227-9500

◆ 광주은행 : 001-107-228160 ◆ 농협 : 617-01-108334

※ 예금주 : (주) 광주일보

## 무 담보 무 보증

### 기계·장작·애음수·표차·랑금전

연락처 010-4408-8911

##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 대지 720평 • 주차 80대

• 하남무진로 80m 도로변

• 한국농촌공사 옆 건물

• 017-620-2311

• 010-2255-2600

##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 972-4585 원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 LC빌딩 사거리)

## 동림2지구 신축·각층 100평 병·의원·학원·상가 1층 대형마트 확정

### 첨단중심 상업지역

• 정부지방청사 예정지 200평

• 부영·호반·정문부근 145평, 185평

• 청사·동성로 34평

• 청사·동성로 34평